

# 착한 가격, 좋은 품질에... 어깨춤이 절로~



**밤하늘 수 놓은 불꽃놀이 장관** 아줌마들의 끼와 열정을 펼치고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의 농·축·수 특산품을 싸게 구매하는 '제2회 아줌마 축전'이 7일 순천 팔마경기장의 밤하늘 수 놓은 화려한 불꽃놀이로 시끌벅적한 축제의 장을 열었다.



### ▲가격에 반한 주부들

아줌마 축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줄을 지어 특산물 판매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이번 축전에는 호남 지역의 특산품들이 시중가보다 최고 30% 이상 착한 가격에 판매돼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다.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화려한 뽀리댄스

순천 팔마경기장에서 열린 '제2회 아줌마 축전' 마지막날인 9일 뽀리댄서들이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부스 개장 커팅** 축전 첫날인 7일 주승용 국회의원과 기현호 광주일보 편집국장 등 내외빈들이 참석, 개장 커팅을 하고 있다.



**야 맞춤킨다** 수 백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성황을 이룬 아줌마축전 골든벨에서 출전자들이 문제의 정답을 맞추자 환호하고 있다.

## 화제

### 환경 보호하고 장애인 돕고

#### 수익금 재할애에 활용 사회적 기업 '소화 아랍 일터'

아줌마 축전 행사장에 설치된 부스 50곳 중 가장 눈길을 끈 곳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소화 아랍 일터' 부스였다. 유산균·효모균·사상균 등 EM(유용미생물·Effective Micro-organisms)으로 만든 제품들을 전시한 이 부스엔 온종일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제품이 부각되면서 이 부스도 덩달아 인

기를 끈 것이다. 이 부스에서 파는 제품은 EM 세탁비누·EM 여성초 세안 비누·EM 샴푸 및 치약 등 13종이었다. 지적장애·정신장애 등 직원 38명이 광주시 남구 봉선동 '소화 아랍 일터'에서 각종 제품을 제작·판매 중이다. 지난해 사회적 인건기업으로 설립된 '소화 아랍 일터'는 장애인들이 만든 대표적

인 사회적 기업이다. 장애인들이 친환경 재료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까지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 수입만 1억3500만원.

올해 목표는 2억5000만 원이다. 수입은 직원들 월급으로 지급되고 있다. '소화 아랍 일터' 김종일(40) 사회복지사는 "수입이 늘어날수록 장애인 고용창출 효과도 증가할 것"이라며 "여기저기서 제품 문의가 오고 있는데, 수익금이 장애인들의 재할애를 위해 쓰이는 만큼 많은 이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처녀 출전해 1등 감개무량"

#### '무진주 시낭송 대회' 최우수상 광주 최현화씨

축전 첫날 하이лай트는 아줌마들의 소녀다운 감성(?)을 잘 보여준 '무진주 시낭송 대회'였다. 소릿적 아름다운 글로 사내들의 심금을 울렸을지 모르나 문학소녀의 다소곳한 느낌을 풍기는 10여명이 대회에 참가 경연을 벌였다. 30대부터 50대까지, 고운 목소리와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시를 암송하

는 모습은 경쟁을 떠나서 문화예술 향연 그 자체였다. 이번 대회 최고상은 광주시 서구에서 온 최현화(44)씨. 대회에 처음 출전에 최우수상을 거머쥔 최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나일한 시인의 '여보게나 힘내시게'를 낭송해 많은 경쟁자를 누르고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다. 평소 시 듣기 좋아해 용기를 내 무대에



섰다는 최씨는 아줌마 특유의 절절한 목소리로 시의 분위기를 잘 살려 낭송했다는 평을 들었다. 최씨는 "우연히 인터넷을 보고 용기를 내 도전했는데 1등상까지 받게돼 감개무량하다"며 "상금도 푸짐하게 받았고 정말 좋은 경험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이모저모

### 초대가수 흥주, 만삭 몸 무대 올라

○첫날 축전 개막행사로 마련된 유명 가수 축하 콘서트에 트로트 가수 흥주가 진정 한(?) 아줌마가 무대에 올라 관람객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어.

이날 축하콘서트에 출연한 흥주는 임신 9개월의 만삭의 몸으로 무대에 올라 열기를 고조 시켜 각별한 사랑을 받아. 알고보니 흥주는 순천이 고향인 천하장사 출신 가수 백승일과 지난해 5월 결혼했고 남편과 함께 아줌마 축전 축하 무대에 초청받아 무대에 올라 진정한 아줌마의 힘을 보인 것.

### 순천대생 캐리커처 그려주기 봉사

○이번 축전에는 행사장에서 순천대 예니메이션학과 학생들이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봉사활동을 펼쳐 관람객들에게 흐뭇한 미소를 선사. 이들 학생들은 축전 기간 동안 행사장을 지키며 부스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각각각색의 캐리커처를 공짜나 다른 없는 단돈 2000원에 선사, 호황을 이뤘. 이들은 학생들은 심습삼아 여러곳을 다니며 이벤트를 해 봤지만 이 것처럼 호응 좋은 곳

은 처음이라며 힘은 들었지만 봉사도 하고 동아리 운영비로 쓸 돈도 벌 수 있어 일석이조였다고 자평.

### 만화 주인공 캐릭터 복장 눈길

○제2회 아줌마축전 행사장에서 여고·여대생들이 만화 속 캐릭터 복장을 한 코스튬 플레이를 연출해 눈길.

김보영(19·동신대 1년)·이주영(17·전남 여상 2년)양 등 4명은 행사장인 순천 팔마경기장에서 일본 만화 '천사금렵구' 주인공 캐릭터 복장으로 자신들의 매력(?)을 발휘해 방문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 갈채.

이들 학생들은 이날 하루 동안 만화 속 주인공 캐릭터 연출을 위해 7벌의 복장을 갈아입었는데, 이양은 "4년 전부터 코스튬 플레이 연출을 해왔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인 적은 이번이 처음인데, 내가 더 즐거웠다"고 환한 미소.

### 화순 모후산 꾸지뽕 잎 차 인기

○순천에 사는 최기열(42)·김경자(여·41)씨 부부는 화순 모후산에서 직접 채취한 꾸지뽕 잎 차·꽃차·보리순차 등 각종 차를 선보여 인기. 이들 부부는 '모후실에서 만난 차'라는 제목의 부스에서 꾸지뽕 잎 차 등 15종의 차를

판매했는데, 이 부스를 지나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무료 시음 행사를 벌여 축전 장을 찾은 이들에게 호평.

최기열씨는 "여러 행사장을 다녀봤는데, 이번 행사처럼 볼거리·먹거리가 다양한 행사는 처음"이라며 "전날엔 어린아이를 데려와 노래도 부르고 마음껏 놀았다. 인맥도 쌓으면서 가족간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이 무엇보다 좋았다"고 설명.

### '우리엄마 최고 가요제' 열기 후끈

○축전 마지막날인 9일 '제2회 아줌마 가요제 결선대회'가 열려 관객과 가족 등으로부터 뜨거운 응원의 박수.

이날 결선엔 주부 12명이 참가해 열띤 노래 경연을 펼쳤으며, 무대 밖에 참가자 12명의 가족들이 '우리엄마 최고', '엄마 힘내'라는 응원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응원하는 등 열기로 후끈.

정승현(36·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아내가 전날 가요제 예선에 참가했다가 떨어졌는데, 결선대회라도 보고 가기 위해 다시 찾았다"며 "비록 떨어졌지만, 정말 재미있는 행사였다"고 설명.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순천=김은정기자 ejkim@kwangju.co.kr